

I. C. N.

News Release



15th Quadrennial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13th-19th May 1973

No. 6 & 8—1973년도 멕시코 총회

제15차 ICN총회가 1973년 5월 13~19일까지 Mexico의 Mexico City에서 개최된다. 5월13일 저녁(일요일) Mexico정부요인 및 Mexico 간호협회의 내빈등의 참석으로 공식개최되는 이 회의는 각국의 고유의상을 입은 간호원들이 전통적인 이 회의를 다채롭게 할 것이다.

5월 14, 15일간에는 ICN의 관리기구인 CNR(각국대표자 회의)가 개최되며 전세계 전문 간호원과 그들의 활동에 관련된 결의등을 하게 된다.

금년도 총회 주제는 "Nurses & Nursing"이고 영어, 불어 및 스페인어가 사용된다.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는 새로 선출된 ICN 임원들과 신입 회원국이 소개된다. 총회기간중 모든 참석자들은 Mexico 간호협회에서 마련된 여러가지 행사에 참가하여 Mexico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문화와 민속을 맛보게 된다.

ICN의 회원국에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간호원은 누구나 이 총회에 참석할 수가 있고 간호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비는 1972년 12월 1일까지는 미화 55불이고 1973년 3월 1일 이후는 접수하지 않는다. 참가 희망자는 금년 각 소속 회원국을 통해 등록을 할 수 있고 총회 일정과 각종 행사에 관한 안내서를 받게 된다.

참가신청은 학생 800명을 포함하여 10,000명까지 가능하며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10불을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신청은 1973년 3월 1일로 소인이 찍혀야 한다. 참가신청은 각 소속 회원국에 미리 해두어야 회원국에서 1973년 3월 1일 이내로 ICN에 접수 되도록 한다. 등록이 완전히 끝나면 등록필증과 등록번호가 발부되며 이것을 Mexico 총회때에 지참해야 한다. 총회전과 총회후의 관광여행에 관한 명세는 Program에 들어 있으며 호텔예약은 참가신청서에 양식이 기재되어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No. 7—Mr. Mario Cerutti 가

ICN 본부의 Business Manager 로

5월 1일부터 근무하게 되어 ICN본부 활동의 제정과 행정년의 업무를 맡게된다. 또한 내년 Mexico총회의 전반 준비 및 계획을 전담한다. Mr. Cerutti는 스위스인으로 Lausanne의 대학에

서 상경 및 정치학을 전공하였고 유럽 아시아 등지에 근무와 여행경험이 풍부하고 영어·불어·스페인어 및 독일어에 능통하다. 그간 2년 반

동안 Business Manager로 일한 Mr. Andve Mam은 Washington D.C에 있는 World Bank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해외의 취업을 원하는 간호원들에게

ICN에서는 요즘 전세계 여러나라의 간호원들로부터 취업희망, 근무조건, 주등록등에 관한 개인적인 문의 서신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ICN은 이런 종류에 관한 자세한 자료가 없고 또 개별적인 회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 회원국에서 이런 사실을 회지 혹은 기타 간행물 등에 실려서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든 서신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알려 왔다.

단일 귀하가 외국에서 취업이나 학업을 하고자 원한다면 가기를 원하는 나라의 입국절차, 간호원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근무조건, 면허 및 주등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은 세계 각국의 간호원단체의 연합체이며 개별적인 카운셀링은 하지않고 있어 가장 신빙성있는 자료와 협조는 소속 간호협회와 귀하가 가고자 원하는 국가의 간호협회에 의존하는 것이 정확한 길이다.

대한간호협회는 ICN의 정회원국으로서 ICN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알선을 해 줄 수 있다. ICN의 회원국 이름과 주소를 알려면 국제우체환(미화 5불)을 ICN출판부에 보내서 신청하거나 대한간호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 해외에 계신 회원들께 □

해외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미국의 여러 주(State Board of Nursing)에서 여러분에 대한 개인별 조회서가 본회로 많이 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현주소가 분명치 않아서 해외에서 여러분들이 조조하게 기다릴 서류들이 한심하게 늦잠을 자는 수가 많습니다. 항상 본회에 주소 변경을 알려 주시고 거처를 옮길 때에는 늘 이전하는 새 주소를 살던 곳에 남겨 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보낸 서류가 수취인을 못찾으면 대략 3~4개월이 지나야 본회로 돌아오므로 그때에는 별 수 없이 서류를 포기해야 합니다. 특히 평생회원 여러분에게 가는 "대한 간호"지가 선편으로 발송 후 1~2개월만에 도착되는데 날진 주소가 없기 때나버리면 여러분을 찾아온 우편물이 주인을 잃고 쓸모가 없어집니다. 항상 주소를 쓰실때에는 방호수(Room No.), 층별(Floor), 아파트 번호 등을 정확히 기입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